

공해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Francis A. Shaeffer 저/송준인 역/서울:두란노서원 1990)

김동원

I. 서론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기본적인 평형을 유지한다. 가령 쥐가 늘어나면 뱀, 족제비, 고양이들이 늘고 따라서 쥐들도 다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쥐가 늘어나도 다시 줄어드는 생태계의 기본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즉 뱀이나 족제비 등이 인간이 제조한 약물이나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그 숫자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어 균형이 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태계의 균형 파괴는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흔히 환경파괴 혹은 공해라고 부른다.

공해를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공업 발전에 따른 수많은 종류의 폐기물(예를 들면, 화공약품, 분해되지 않는 농약, 연구실 및 실험실의 폐수, 자동차 매연, 프레온 가스, 각종 쓰레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핵 폐기물 등등)이다. 이들은 자연계의 정화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대지, 하천, 호수, 해양, 그리고 대기권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매년 0.002%씩 누적되고 있는 가스 방출로 인한 '온실효과', 1987년 인공위성에 의해 확인된 남극 상공의 '구멍난 오존층', 1980년 세계자연보존연맹이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난 지구상의 25,000여종의 식물과 1,000여종 또는 아종의 '척추동물의 멸종 위기', 벌채와 원주민의 경작에 따른 매년 76,000km² 씩의 '열대림의 감소', 미개발 아프리카에서 매년 50km씩 늘어가는 황갈색의 허무란 뜻을 지닌 '사하라 사막의 확장',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질병과 기후 변화' 등등. 듣기만 해도 전율케 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억누르고 떨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공해 현상은 분명 문명 발전의 역함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함수에 대한 세계의 표정은 어떠한가. 물론 유엔의 환경 계획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잇달아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 의회만 하더라도 온실효과 등에 대한 연구비로 43억 달러를 책정한 법안이 제출되고, 소련에서도 고스콤츠리로 다라는 환경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중국은 북방지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방사림을 조성하고, 일본도 환경보호 산업과 공해방지 산업에 눈을 돌리는 등 선진 공업국들은 많은 투자 계획과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많은 전술적 차원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제적인 협력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미래의 지구 환경을 기대하기보다는 다가오는

두려움에 자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은연 중 자리잡고 있는 세기말적 감정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본다면 현대기술 문명을 이룩한 과학적 사고방식의 오류,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곧바로 공해방지나 환경보호라는 목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동기부여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의 부재를 가져오게 된다.

문제해결 방식에는 크게 보아 전략적 차원과 전술적 차원이 있다. 즉 대체 연료를 개발한다든가 혹은 프레온 가스 사용을 규제한다든가 하는 것을 지엽적인-선진국 및 일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뿐이어서 다분히 지엽적이라 할 수 있음-전술적 차원의 문제해결 방식이라 한다면,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전략적 차원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전략적 차원은 일반적으로 전술적 차원에 대해 우선한다. 기업에서도 최고 경영자의 정책 결정이나 장기 전략은 단기적인 전술에 앞서 조직원들의 비전이나 계획, 그리고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뚜렷한 개념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과 육은 언제나 안식을 얻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또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도 한마디로 말하면 공해 대책을 위한 세계관적 전략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성경적 관점, 즉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간에 나타난 그릇된 전략을 비판하고 공해 대응을 위한 올바른 전략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II. 저자 소개

프란시스 A 쉐퍼 박사는 스위스 라브리(L'abri) 공동체의 창설자

로서 라브리 사역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저서를 통해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 시대의 기독교 지성이다. 앞서 소개한 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인간 세상에 흔히 나타나는 사조와 행동양식에 대해 그의 신학, 철학, 역사학, 사회학, 그리고 예술에 이르기까지의 해박한 지식과 특유의 꼼꼼한 학문성을 통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만 이를 전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올바른 세계관에 의해 행동할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한 윤리의식과 삶의 도덕적 기초를 제공한다.

Ⅲ. 본서의 내용

지금까지의 세파 저서들이 주로 인간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기초를 성경적 원리에 의해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본고에서 소개하는 「공해」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간에 있어왔던 기존의 연구에 대한 비평과 더불어 성경적 원리에 의해 제시한다. 그리고 부피는 작지만 다른 저서에서 보여줬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의 해박한 지식과 꼼꼼한 검증으로 일관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사물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아 자연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올바른 위상을 성경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아울러 올바른 공해 대책을 위한 기독교인의 전술에 대해 부연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본서는 크게 나누어 네 부분으로 계단지어져 있다. 첫 부분은 목차의 1장에 해당되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참상을 소개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로서 그간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부록에 첨부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논문은 「Science」지에 게재된 린 화이트(Lynn White) 교수의 “생태계의 위기에 관한 역사적 근거”로서 전통적 기독교 교리에 뿌리박힌 그릇된 자연관을 비판하고, 비록 이

단적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적인 대안으로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동등하다고 신앙했던 앗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로 돌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의 논문은 저자가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인 바 「Saturday Review」지에 실린 리처드 민즈(Richard L. Means)교수의 “자연에 대해서 왜 걱정하는가”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앞서 화이트 교수가 제기한 자연에 대한 교만과 도덕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연을 인간의 조직체계의 일부라고 보아 인간 및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범신론적 주장을 담고 있다.

2장과 3장에서는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소개된 앞의 두 논문을 포함하여 그릇된 해결책들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다룬다. 범신론적인 입장은 자연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수렁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을 낭만화시키거나 저급한 피조물에게 인간의 반응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인간을 저급하고 비인격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을 이론적 차원과 실제적 차원에서 비평하고 있다. 자연의 수호신이라 불리기까지 하는 성 프란시스코의 개념 또한 모든 피조물의 영적인 자율성 및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만연되어 우리를 혼동케 했던 플라톤적인 이분설도 자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박한다.

4장 및 5장에서는 성경적인 자연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저자의 명쾌한 주장이 제시된다. 여기서 그는 자연에 대해 그 자체적으로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성경적 자연관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즉 인간중심적인 측면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인격과 비인격의 간격(구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인 신과 창조된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과 유한이라는 간격이 있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서로 수평적인 연합관계

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만물을 사랑으로 완전하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존중하고 형제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본질적으로 천하게 보고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모든 자연도 현재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과 부활시에는 또한 함께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장차 있게 될 자연의 모습을 지향하여 자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식물을 비롯한 기타 피조물들은 각각 그 본질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전혀 가치 없는 것인 양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에 대해 새삼 강조한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해서 생태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치유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교회는 모든 회중과 선교 사역 속에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다는 실험 공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방치하여 히피족이 간직하는 만큼의 자연에 대한 애정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만 보여왔던 잘못된 기독교의 아류로 똑같이 전락하게 되버린다는 사실을 새삼 경고하고 있다.

IV. 고찰 및 결론

쉐퍼 박사는 탐욕적인 현대 인간과 소위 낭만적인 사조들에 대해 모든 지성을 동원하여 분노한다. 아울러 잘못 퍼진 기독교의 종래적 자연관과, 무관심하고 안온한 울타리 속의 침묵을 즐기는, 그리하여

자연에 대한 순수성은 히피족이나 비트족 만큼도 간직하지 못하는 현대의 바리새인들에 대해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경고한다. 사물을 진정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위상은 회복된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도 발견된다. 셰퍼 박사는 바로 이 점을 공해 대응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정직하면서도 적극적인 어조로 외치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인본주의 인간관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현대 기술관료, 기계주의적 사고방식을 포함한 인간의 과학적 사고방식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케하는 또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간의 자연관을 비평하고 성경적 자연관을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주의깊게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아졌다는 첫번째 원리에만 안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를 우상과 타락이라는 필연적 함정으로 끌어가고 말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편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분으로만 제한하게 만든다. 우리 모두가 현재 추구하고 있듯이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목적 및 목표들은 일원론적 통합의 원리에 의해 재조명되어야 한다. 창조의 원리를 폭넓게 활용하고 성경적인 제한의 원리, 절제의 원리를 방향 설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자연주의, 범신론 등의 사조에 맡겨둘 수만은 없는 것이다.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하나님 뜻의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더욱 더 적극적인 현실에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금 상기하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 청지기이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 청지기는 맡은 바 달란트를 잘 간직하고 활용하여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각자의 결

실로 그분 앞에 서야 한다. 따라서 홍수 이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창 9:9~13)